

SK이노, 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전 기부



SK이노베이션이 장애체육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SK이노베이션은 5일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방문해 기부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명호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및 관계자들과, SK이노베이션 강선희 지속 경영본부장과 구성원들이 참석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말 시작한 '2018 평창, 모두의 응원을 더해 주세요'라는 주제의 응원광고가 SNS상에서 한 달 만에 조회수 700만회를 돌파하는 등 열띤 호응을 얻자 이 같은 기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동계올림픽의 응원열기와 관심을 장애체육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에도 이어가자는 취지다.

평창동계올림픽 응원 캠페인 조회수를 기준으로 정해진 기부금 5000만원은 5000만 국민이 한 마음으로 응원의 힘을 보태 장애체육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 임수길 홍보실장은 "기업 PR 캠페인은 회사가 갖고 있는 기업가치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회사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도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SK이노베이션이 도입한 신개념 기부방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도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유진어린이집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 유진그룹은 유경선 회장이 1996년 설립한 유진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 부천 소재 유진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 원아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육·교육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고 6일 밝혔다. 유진어린이집은 복도와 교실 벽면을 친환경 및 방염 페인트로 칠하고 계단에는 안전바를 추가로 설치했다. 무엇보다 환경호르몬 등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무독성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 원아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새단장을 마친 유진어린이집에 등원한 원아들이 즐거워하고 있다.

/유진그룹

한화첨단소재 복합소재 전시회 'JEC 월드' 참가

한화첨단소재가 오는 8일(현지시간)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JEC World 2018 국제 복합소재 전시회'(JEC월드)에 참가한다고 6일 밝혔다.

프랑스 복합소재산업 연합기업인 JEC그룹이 주최하는 JEC월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복합소재 전시회로 매년 3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다.

한화첨단소재는 이번 전시회 기간 약 15평 규모의 전시부스를 설치하고, 세계시장 점유

율 1위인 스트롱라이트와 슈퍼라이트를 비롯해 베프라이트, 인텀라이트, SMC, CFRTPC 및 다양한 신규 개발 소재 등을 전시한다.

경량복합소재 외에도 범퍼빔, 스티프너, 엔진언더커버, 로드플로어, 전기차용 배터리케이스 등 현재 생산 중인 자동차용 내외장 부품을 비롯해 스트럿디비, 파티션페일, 서브프레임 등의 신규 연구개발 제품 및 탄소섬유를 적용한 신규 어플리케이션도 선보인다.

한편, 전 세계 8개 해외 생산법인을 운영 중



한화첨단소재 전시 부스

/한화첨단소재

인 한화첨단소재는 독일과 체코 생산법인을 기반으로 유럽 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부품 표준화 및 글로벌 소싱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구서윤 기자

신점[神占] 운세

3월 7일(음 1월 20일)



60년생 보증은 절대 안됩니다. 72년생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날입니다. 84년생 소홀했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 보세요. 96년생 파랑새가 서신을 전하니 가인과의 화합입니다.



61년생 좋은 벚이 집에 가득하니 웃음꽃이 만발하겠습니다. 73년생 자손에게 경사가 있는 날입니다. 85년생 불의의 사고를 조심하세요. 97년생 이성간에 이해와 양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50년생 명예와 인기가 동시에 오르는 날입니다. 62년생 입신양명하니 일마다 뜻대로 됩니다. 74년생 구설수만 조심하면 괜찮은 하루입니다. 86년생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51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3년생 고집쟁이는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75년생 이성간에 마찰은 대화와 선율이 보약입니다. 87년생 자신을 희생해야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52년생 가는 곳마다 나를 반기니 좋은 일만 생깁니다. 64년생 관록을 얻으니 명예가 오르겠습니다. 76년생 부부가 마주대하니 기분이 새롭습니다. 88년생 아주 길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3년생 가족에게서 좋은 소식을 접할 수 있겠습니다. 65년생 속전속결로 처리하면 후회가 따릅니다. 77년생 말조심을 하여야 합니다. 89년생 식복이 있으니 대접을 받습니다.



54년생 금전, 명예운이 아주 길합니다. 66년생 가족 나들이에 가정이 화락합니다. 78년생 사세가 확장되고 신규사업을 도모합니다. 90년생 동료간에 사소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55년생 운이 막히니 건강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67년생 검소한 생활을 하세요. 79년생 베풀면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91년생 꽃이 정원에서 웃으니 벌, 나비가 기뻐합니다.



56년생 약간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길합니다. 68년생 새로운 일을 착수하세요. 80년생 자신을 희생해야 큰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92년생 취직이나 계약이 성사될 듯 합니다.



57년생 서두르지 마세요. 69년생 정신을 가다듬고 새로운 일을 착수하세요. 81년생 친구와 동료간에 모임이나 회식을 가시게 됩니다. 93년생 감정대로 하지 말고 고집부리지 마세요.



58년생 서류상에 이득이 있을 듯합니다. 70년생 자녀에게 신경 쓸 일이 있겠습니다. 82년생 무심코 던진 말이 일파만파의 파장됩니다. 94년생 무난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59년생 기회가 왔으니 더욱 힘을 내세요. 71년생 옛 친구나 동료에게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83년생 직장에서 인정 받으니 승진수가 엿보입니다. 95년생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들팡!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카로 세로로 3x3으로 이루어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전화운세상담 흥키페 10분 무료상담 이벤트!

흥키페 접속 후 회원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에 METRO 입력하면 10분 무료상담!!

타로, 연애, 심리 1:1 전화상담 흥키페

www.hongafe.com

7							9	
1		6	8	7			5	
	6			5	4			
1		7		8				
	4	6	8					
6	2				9		4	
	7			3				
3		1	2	4			9	
6					8			

2	7	3			4	5		
4			2				1	
7			5				2	
6	9	7		1	4		3	
3			1				9	
1			6				8	
9	4	5			7	2		
2				7	9	8	1	
9					5	6	4	

스도쿠 정답								
2	6	4	7	3	9	5	8	1
3	5	8	1	2	4	7	6	9
9	1	7	8	5	6	3	4	2
6	8	2	5	1	3	9	7	4
7	9	5	4	6	8	2	3	1
4	3	1	9	7	2	8	5	6
8	2	6	3	9	5	4	1	7
1	4	2	3	8	7	2	3	5
5	7	3	2	4	1	6	9	8

문제 제공= **봉우리**

김상회의四季



추위도 인생도 풀리는 경칩



시주감명이 태어난 연월일시를 나타내는 육십갑자를 통해서 푸는 운명학의 코드라면 관상학은 말 그대로 우리 자신의 얼굴 모습과 피부색, 골격 등을 통해서 운명을 감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주감명을 통해서 보는 운명의 흐름과 관상을 통해서 보는 운명의 길이 흡사하다는 것이다. 피부색이 검은 사람은 사주를 받아보면 옆에 아홉은 수국이 왕한 것을 알 수가 있고 피부가 하얀 사람은 대부분 금국이나 화국의 조후가 뚜렷한 것이다. 골격이 강하고 큰 사람들 역시 금국이나 목국의 구성이 왕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듯 오행의 쏠림만으로도 건강상의 문제와 성격적인 특성의 대별은 무난하게 감지가 되며 사주를 풀어보면 역시 오차가 거의 없음을 알게 된다. 말이 씨가 되듯 마음속의 생각이 굳어지면 표정을 감추기 힘들고 이러한 마음의식은 얼굴상에 인상을 넘어 관상으로 굳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십이나 오십 이후의 관상은 자기 지나온 날의 자화상이 되는 것이다. 풍수는 어찌 보면 천지 자연의 드라난 상으로서 자연의 관상이라 할 수 있다. 얼굴을 구성하는 코는 평야에 솟은 산이요 이마는 언덕이며 입은 호수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코가 높은 사람들은 골이 깊은 산처럼 함부로 이방인을 허락하지 않는 강한 자존심의 소유자로 본다. 사람의 신체를 우리의 축소판으로서 소우주라 얘기한다. 인체의 오장육부는 오대양 육대 주요, 인체의 혈이 365개인 것은 일년이 365일 것과 같으며, 여자의 혈이 366개인 것은 사년마다 오는 윤년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이다. 자연의 구성을 닮은 모습이 인간인 것이다. 그러니 사주가 곧 관상과 상통함이고, 관상은 역시 우주의 모습인 풍수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니 이 삼자가 두루두루 통한다고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행동관상이라는 것도 있다. 일종의 습관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진 기질을 판별하는 것인데, 눈매가 파르나니 얇고 떨리는 상, 한 쪽 다리를 계속 뻣다든가 말을 할 때 계속 입에 침을 바르던가 하는 상은 절대 좋은 행동관상이 아니다. 계산적인 사고와 안정되지 못한 내면, 그리고 거짓말을 자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입에 침을 바르게 되는 행동양상으로 관상학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위해를 가한다고 보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http://www.saju4000.com)